

(주)한국ICT접근성연구센터

회 사 소 개



Korea Center for Accessible ICT
한국ICT접근성연구센터

(주)한국아이씨티접근성연구센터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국내외 정보접근성 표준 개발, 정보접근성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접근성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연구단에 참여하여 장애인과 안전약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아동이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의 효과성 검증, 수화 인식을 위한 기초 기술개발처럼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성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TTA 표준화위원회 활동 계획

(주)한국아이씨티접근성연구센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접근성 프로파일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을 비롯한 안전약자들이 생활안전 관련 정보를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하려면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이에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청수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초점집단면담(FGI)을 통해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파일 분류 작업을 진행하여 이를 표준화하고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화 계획

(주)한국아이씨티접근성연구센터는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약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ICT 활용 경험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표준개발, 응용서비스 개발 등에 앞장선다. 특히, ITU-T, APT 등의 국제표준기구 및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 표준 관련 기관 등을 통한 국내외 접근성 표준화 활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접근성 전문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 및 한국의 ICT 접근성 기술전파 등 ICT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접근성 및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관련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TTA